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식이, 생활양식 요인과 혈청 항산화영양소 상태 및 혈청 지질에 관한 연구

최영선¹, 서정미², 이난희², 조성희², 박의현³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³

Diet, lifestyle behaviors, serum antioxidant and lipid statu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Young-Sun Choi¹, Jung Mee Seo², Nan Hee Lee², Sung-Hee Cho², Wee Hyun Park³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aegu University, Kyungbuk, ²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aegu Hyosung Catholic University, Kyungbuk, ³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최근 우리나라는 관상동맥질환의 유병율과 그로 인한 사망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연구는 관상동맥질환자에서의 2차 예방을 위하여 식이 및 생활양식요인들, 혈청 지질, 항산화영양소 상태를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관상동맥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외래환자들 26명(남자 18명, 여자 8명)과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대조군 55명(남자 34명, 여자 21명)을 대상으로 일반환경, 식생활 및 생활습관을 설문조사하였으며, 혈청 지질, 과산화지질 및 항산화영양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관상동맥질환자군은 남자는 평균 57.9 세, 여자는 평균 64.6 세, 대조군의 남녀 각각의 평균 연령은 53.4세와 58.0 세였다. 남녀 별로 신체계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관상동맥질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남성에서 현재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운동은 환자군은 주로 가벼운 운동(30.8%)을 실천하였다. 식습관은 남성은 환자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다. 남성에 있어서 관상동맥질환자군의 에너지 섭취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에너지를 제외한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을 상회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비타민 A, 비타민 B₂, 칼슘, 철분 섭취량이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관상동맥질환자는 대조군에 비하여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높았고, HDL-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LDL/HDL 콜레스테롤 비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혈청 retinol과 과산화지질 농도는 환자군이 높은 경향이었으며, 비타민 C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LDL/HDL 콜레스테롤 비는 남성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이 더욱 유의하였고, 지질과산화물의 농도가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사관리는 고중성지방혈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환자에서 영양상담을 통한 식습관이나 식생활태도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항산화영양소 상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항산화영양소 영양상태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